

### 양산의 역사와 문화 2000년展 24~10월 21일 통도사박물관

지역 대표 박물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이 부산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24일~10월 21일까지 '양산의 역사와 문화 2000년'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양산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아시아 문화의 이해와 교류를 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 문화공간으로서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위상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울주 운흥사 개반 금강반아비리밀경 변상도 경판

## 불교문화 정수 아시아인 품으로

### 자장율사 가사 등 불교문화제 350여점 개막일 학춤 공연 등 다양한 행사

전시에는 고대 양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고분 출토 유물과 통도사를 비롯한 양산 인근 사찰과 절터에서 소장 또는 출토된 대표적 불교문화재 뿐 아니라 양산의 도자문화와 양산 지역의 고지도에 이르기까지 양산을 대표할 수 있는 350여점의 유물이 선보인다.

주요유물을 소개하면 '역사와 지리'에서는 양산 관련 각종 고지도와 자연환경 등이 전시되며, '선사와 고고문화'에서는 양산의 고분을 대표하는 금총총의 화려한 금속유물이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문화'에서는 통도사의 금강계단 관련 현판 및 각종 문헌자료를 한자리에 모아 전시하며,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모셔온 석가여래진각가사와 자장율사의 가사가 박물관에서 공개된다. 또 간월사지와 최근 발굴조사된 울주 운흥사의 와전·기와 등의 유물도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는 경판과 함께 처음 공개된다.

'양산의 사람들과 삶'에서는 충절의 땅으로서 양산을 부각시키기 위해 신라 박제상과 조선 초기 충신집안인 이징석,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에 참가한 조영규 등의 관련유물이 전시된다. 또 양산의 산하를 노래한 '고향의 봄'의 작곡가인 양산출신 이원수 선생의 유품과 친필원

고 등도 일련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 전시 개막일에 통도사지역에서 전승되어온 사찰학춤을 재현 공연하고, 이를 볼 수 있는 동영상 일련에 제공하여 보다 생동감 있는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551-382-1001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lee@buddhista.com



○유신동 25번지 출토 금동반가사유상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지난 주말 대구에 내려갔다. 일을 마친 후 저녁에 기차 역으로 나가보니, 태풍으로 철도가 끊겨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다고 한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잘 타고 내려온 그 길이 그 사이에 쪽으로 막혔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바로 고속버스를 알아보았지만, 이미 모든 차원이 동이 난 뒤였다. 비바람 속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결과, 결국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택시를 타게 되었다. 내일 중요한 일만 없다면, 날이 밝은 다음 안전하게 버스를 타고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 극한적인 날씨 속에서 총알택시를 타고 달린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었다. 바람에 차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지고, 양동으로 0.1초 간격으로 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차를 탄 것을 정말 후회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일어난 일이다.

우여곡절 끝에 다행히 서울에 무사히 도착했다. 옷은 비에 젖어 구겨졌고, 몸은 피곤했다. 잠깐이나마 '죽음'의 공포를 본 느낌이랄까, 칙칙 같은 밤에 쏟아지는 비와 바람을 즐기고 달리면서, 부연 시야 속에 언뜻언뜻 비추는 길은 밤의 속살을 만져본 그 순간들을 한동안 잊기 어려울라. 다음날 뉴스를 보니, 김천과 강릉 등 전국 곳곳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 재난을 당한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마음 간절하고, 특히 수해지역의 산사들이 입은 피해가 허

두 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한다.

내가 그렇게 무리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유는, 이번 한국 방송대상

### 틱낫한의 '화'

작품상을 받은 KBS의 TV, 책을 말한다' 프로그 출연하기 위해서였다. 베트남 출신으로 프랑스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틱낫한 스님의 베스트셀러 <화>라는 책을 소개하는 기회에 대답자로 참가하게 된 것이다. 틱낫한이란 이름을 한자로 표기하면 석일행(釋一行)이다. 스님은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뜻 그대로 참여불교(Engaged Buddhism)를 주창하여, 베트남의 전통불교를 개혁하였고, 평화에 대한 신념 때문에 공산정부에 의해 추방당하여 미국과 프랑스로 망명한 이후 많은 서구인들에게 불교를 전파한 인물이다.

"현대인은 누구나 화를 안고 살아간다."는 책의 첫 문장부터 시선을 잡아끌었다. 이 책은 탐·진·치 삼독을 극복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구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설명한 것이다. 책을 읽는 동안 "그래, 이게 바로 내 이야기야" 하고 느껴지는 현대인이 누구나 안고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베트남 전쟁 동안에 많은 동료와 제자들을 분신자살로 잃은 쓰라린 상처를 지닌 스님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 화가 나면 그것을 무조건 억누르지 말고 마치 우는 아기처럼 잘 달래야 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화는 자신의 일부로서, 간이 나빠졌다고 때어버릴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잘 처리하면 비옥한 거름이 되는 것처럼, 화를 잘 가꾸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한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깊은 깨달음을 쉬운 언어로 풀어쓰는 틱낫한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 소개하려고 한다. 여러분도 문장마다 청명한 기운이 감도는 스님의 글을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문학평론가

## '천년의 소리, 천년의 울림'

봉화 청량사 28일 산사음악회 두번째 마당



○이번 음악회에는 타악 연주팀 '두드락', 북연주가 '최소리와 자유인', '신촌불무스' 등이 출연한다.

### 북·국악·대중음악·춤 어우러진 한판

지난해 전국에서 5천여명이 넘는 관람객이 산사음악회를 찾아 화제가 됐던 경북 봉화 청량사 청량사가 '천년의 소리, 천년의 울림'을 주제로 28일 오후 7시 산사음악회의 두 번째 마당을 펼친다.

주제에 걸맞게 '북'을 주제로 한 공연으로 꾸며질 이번 산사음악회에는 타악기 연주팀 '두드락'과 북연주가 '최소리와 자유인'이 출연해, 우리 북의 멋과 맛, 흥을 온 몸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음악회에서 타악기 연주팀 '두드

락'은 우리 일상 속에 녹아 있는 장단과 몸짓, 소리들을 강렬하고 다이내믹한 퍼포먼스로 연출하고, 북연주가 '최소리와 자유인' 또한 영혼과 마음을 울리는 북연주로 인간과 자연, 사물을 하나의 소리로 묶어줄 것이다.

또 임인호·정경화의 '신촌불무스'의 연주와 비구니 성악가 정물스님의 독창, '정숙회 송파무용단'의 아름다운 춤마당, 시조창 한마당 등도 마련되어, 북과 국악, 대중음악이 어울린 무대로 꾸며진다. 산사음악회의 진행은 국악인 오정혜 씨가 맡는다. 054672-1446



○능허스님 작 '환경-구원의 에너지'

### '환생' 주제 작품전

능허스님, 15일까지  
메디컴 한방병원서

밀교의 진언인 '움마니반메후'를 캔버스 속으로 끌어들이, 현대화된 만다라를 보는 듯한 독특한 작업을 해 온 화가 능허스님이 15

일까지 수원 메디컴 부속한방병원 7층 갤러리에서 '환생'을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님의 만남, 사랑의 축복, 스비는 흐르고, 봄의 그리움, 빛과 에너지, 자연과 우주, 우주의 꽃은 피고, 한화의 꿈, 행복의 문, 구원의 에너지, 관음의 사랑 등 다양하고 독특한 작품세계를 펼쳐 보인다. 019-325-1279

### 제주 4·3문학상 제정

관음사 부설 사회문화원

제주 관음사 부설 제주불교사회문화원은 '제주 4·3문학상'을 제정, 내년 4월 3일 첫 시상한다.

관음사는 사건 당시 토벌대와 무장대가 대립했던 최대 격전지로 1949년 2월 치열한 집전의 와중에서 전소되었다 복원된 사찰로 아직도 경내 곳곳에 비극의 흔적이 남아있다. 관음사는 4·3사건의 비극을 해결하고, 그 실상을 후대에 전하는 동시에 통일을 염원하는 취지에서 이 문학상을 마련했다.

중편소설과 체험수기 두 부문에서 공모하며, 체험수기는 사건 당시 어떤 신분이었던 상관없이 응모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 투고할 수도 있다.

### 문화 소식

중편소설은 중단 10년 이내의 작가로 자격을 제한하며 마감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064-758-2118.

### 일서 한국전통문화 학기전

'불교와 혼례문화' 주제 150점

2002 월드컵 및 한 일 국민교류의 해 기념으로 마련된 '한국 전통문화의 향기전'은 우리 전통공예작품을 한자리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다. 16일까지 일본 교토 조형예술 대학내 전시관인 천심관에서 열리는 이 전시에는 한국의 불교와 혼례문화를 주제로 한 150여점의 공예작품이 선보인다. 전시 개막과 연계하여 '한국 전통

음악과 춤의 대항연' 공연과, 공예제작 시연·문화상품 판매 등 한국문화체험행사도 펼쳐진다.

### 동양음악학 국제학술회의

26일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제7회 동양음악학국제학술회의 및 아시아 음악축제가 26일~30일 부산대학교와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아시아의 서사음악'을 주제로 하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우즈베크, 캄보디아, 몽고, 일본, 대만, 인도, 중국의 서사음악 논문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재현경음산대의 사회로 인도 서사음악은 수바쉬라퀴이지에나데교수, 인도 만트라라는 쉬무띠(성악가 및 음악치료가), 몽골 서사음악은 엔비시(국립문화예술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한다.

## 본심·본성이 살아 숨쉬는 피라미드 황토석굴암

- 여타 찜질방이나 황토집과의 비교 할 수 없는 힘의 세계 -



피라미드 황토석굴암 전경

본심·본성이 살아 숨쉬는 황토 + 소나무 참나무 장작과 구들 황토방 + 피라미드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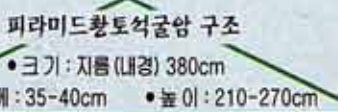
### 피라미드 구조물

피라미드 형태의 공간 구조물이 지구 방위의 남북 방향으로 정확히 배치되어지면 그 공간 구조물 내부의 특징지점(바닥에서 꼭지점 3분의 1지점)에 주로 미지의 에너지 공간이 형성되며 이 미지의 에너지에 의해서 피라미드 내부에는 여간가지 신비한 현상(탈수 건조 현상 및 먼도날 재생, 식물 성장 및 잎이 축적, 생체 치료 및 활성화 효과 등)이 발생

### 황토석굴암이란?

황토석굴암 생황토 40톤과 회오리방식의 구들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번 불을 지피면 10일을 가는 난방, 여타 찜질방이나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세계에서 내 몸의 건강과 정신의 평화를 위해 피라미드 반원구 황토 석굴암이 내 몸은 강력한 에너지의 비밀에 귀 기울여 보자.

영청나 우주의 기운과 지기가 내 몸을 휘둘러 정화하고 재 충전 시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피라미드 황토석굴암 구조  
• 크기 : 지름 (내경) 380cm  
• 벽두께 : 35-40cm • 높이 : 210-27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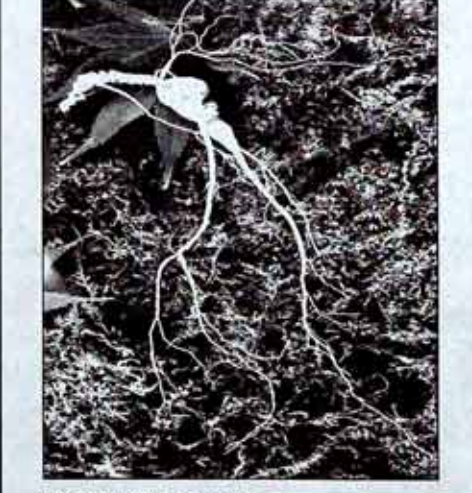
피라 황 토 시공문의: 황토건축가 안진건 017-585-6045 011-9547-4741

##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 蔘 長 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함준비에 지친 수행자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저가격으로 봉양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리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본초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 120가지 下蔘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君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 ###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열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진정작용,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약약 뇌 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력 효험이 있다.

장수하는 스님, 오늘도 養生 求道와 佛功으로 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시 새우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福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오자 하오니 부담없이 勿論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리 최저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정(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